

# 직업평가 정보의 유형 및 충분성에 관한 일연구

이 달 엽(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 I. 서 론

직업평가는 직업발달에 있어서 내담자를 사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업적 탐구와 평가에 초점을 둔 모의 혹은 실제의 일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이며, 이는 효과적 재활계획 수립을 도우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Wesolek & McFarlane, 1991). Weinstein (1978)은 재활내담자에 대한 궁극적 책임과 재활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재활상담가에게 있기 때문에 상담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상담가가 이용하는 평가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내담자의 적격성을 판정하고 재활계획 수립 및 적절한 직업적 배치활동 (Adami & Neubert, 1991), 재활서비스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평가과정 자체가 내담자 동기부여,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자아존중감의 증대를 통해 내담자의 개인적 성장에 기여하고 치료적 경험을 제공한다 (Power, 1991; Pruitt, 1986; Roessler & Rubin, 1982). 내담자-상담가의 전전한 재활계획 개발에 필요한 정보들에 관한 연구는 다각도로 행해져 왔다. Brown과 Sink (1986)는 내담자의 고용가능성과 관련한 27항목 질문지를 이용하여 직업평가사와 직업평가를 의뢰한 재활상담가를 조사하였다. 그들이 담당하였던 내담자들과 관련하여 평가사에게는 27개 평가영역에 있어서 얼마나 충분한 정보를 상담가에게 제공하였는지를 질문하고, 상담가에게는 얼마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를 질문하였을 때, 27개 질문항목 중 18항목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아홉 항목에 있어서 평가사는 상담가보다 높게 반응하였다. 이 결과는 상담가들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평가사가 제공하지 않았으며, 제시된 평가정보에 대한 지각이 서로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Wesolek과 McFarlane (1991)은 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교사, 주정부 재활기관 상담가, 직업배치 전문가, 그리고 사설 재활기관 종사자 집단을 대상으로 40개 평가정보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을 조사하였다. 284명의 응답자로 부터 얻어진 반응을 토대로 위의 40개 재활정보를 일곱 유형으로 나누고 재활정보를 이용하는 위의 네집단의 재활 전문직 종사자들을 구분하여 그 중요성을 비교한 결과 교사들은 학생들의 흥미와 일반적인 직업습관에 대해 다른 전문직 종사자 집단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사설 재활기관과 주정부 재활기관 종사자들은 서로 비슷한 응답을 하였고 직업배치 전문가들은 내담자의 구체적 기술영역과 즉각적인 고용가능성과 관련한 항목을 보다 중요하게 지각하였다. 이 연구는 평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적절한 직업관련 의사결정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재활정보의 유형화를 위한 포괄적 노력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연구자

들이 밝혀낸 직업평가 정보의 영역은 인지적, 교육 및 훈련, 흥미 및 욕구, 신체기능, 진로개발, 개인 및 사회, 그리고 행동적 요인의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편, Dowd와 Wellbrown (1993)은 재활성과에 있어서 내담자 변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Singleton (1989)은 개인이 지닌 기능들 (human skills)을 지각-운동, 지각, 상정적 요인, 및 사회적 요인의 네가지로 유목화하였고 이것이 개인의 직업적용에 가장 중요한 요인들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약물남용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에 관한 연구에서 Renwick와 Krywonis (1992)는 낮은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부정적 사고경향, 좌절 인내력의 부족, 그리고 직업에 대한 빈약한 동기가 성공적인 직업재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장애물들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순수하게 기능적 관점에서 Poor (1975)는 신체기능, 직업경력, 직업훈련을 척수장애인의 직업재활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점들이라고 보았다. 광범위한 직업평가 도구와 문헌연구물의 검토를 통해 Rogers, Sciarappa와 Anthony (1991)는 용모, 지구력 등과 같은 직업 적응기술 및 정서표현, 동료 및 감독자들과의 의사교류 등과 같은 대인관계 기술들이 정신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성공적 고용에 있어 극히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효과적인 재활계획은 전적으로 내담자의 흥미, 기질, 기본 기술들, 능력, 행동, 정서적 안정, 생활조건, 가족, 지역사회 지지 및 서비스, 개인 및 사회적 조건, 그리고 내담자의 편의조건들 (accommodation requirements), 교통수단 등 내담자와 그 상호작용적 환경에 크게 달려 있으며 (Thomas, 1991), 장애인에게 중요한 이 모든 평가정보들은 크게 개인과 환경의 두가지 주요한 영역으로 나누어 질 수 있었다 (Renwick & Krywonis, 1992).

(1). 개인적 변인들: 내담자의 고용가능성은 다양한 근로자 특성들을 필요로 한다. 장애인의 고용가능성에 대한 평가의 주요한 요인들은 내담자의 구체적 직업적 욕구, 직업적 강점 및 약점들, 직업기능들 (Sabin, Cuvo, & Musgrave, 1987), 지적능력과 신체적 제한을 포함한다 (Thoman, 1989). Thomas (1991)는 기본기능들, 행동기술들, 실제 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구직기술, 건강상태와 제한점, 직업준비도, 직업행동들, 치료적 욕구들을 주요한 개인적 평가변인들로 고려하였으며, Pruitt (1986)는 인내력, 직업 관련 태도 및 정서적 상태와 그에 따른 적응행동을 추가하였다. 판단력과 상식, 의사소통 기술, 일관성, 운동능력, 감각, 인지적 요소들, 그리고 직업적 욕구 및 준비도 역시 평가사들이 밝혀야 할 중요한 개인적 평가변인들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Wesolek & McFarlane, 1991; Thomas, 1991).

Lee, Taylor와 Rubin (1994)은 미조리 주정부에 의해 고용된 120명의 재활상담가들에게 평가서비스의 상대적 중요성을 질문한 결과, 내담자의 기능적 측면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Roessler와 Bolton (1985b)은 58개 항목의 직업인성 검사(Work Personality Profile: WPP)를 사용하여 직업인성으로 알려진 직업적 기능영역을 다섯 영역으로 요인분석 방법을 통하여 유목화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결정된 WPP의 심리측정 영역은 과제지향 (Task Orientation), 사회적 기술

(Social Skills), 직업동기 (Work Motivation), 직업순응력 (Work Conformance), 개인의 표현력 (Personal Presentation)의 다섯으로 나타났다.

(2). 환경적 변인들: 환경적 요인들은 개인의 직업적 기능에 있어서의 성취를 방해할 수도 있고 촉진시킬 수도 있다 (Sigelman, Vengroff, & Spanhel, 1979). Sigelman 등 (1979)은 환경적 요인들과 관련한 재활기술들은 신체적 중재, 훈련 및 상담, 환경적 변화와 서비스 전달의 네가지 유목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재활에 따른 환경적 변인들의 유형화는 개인이 처한 재활 환경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도운다. Thomas (1991)는 직업의 신체적 요구들과 지구력 (work tolerance)을 중요한 직업환경 요인으로 인식한 반면, Power (1991)는 직업적 목표들과 구체적 직업조건들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Taylor, Bordieri, Crimando와 Janikowski (1993)는 직업평가사들의 85 직무파제들 (job tasks)에 대한 분석 연구를 하여 다음의 환경적 변인들을 발견하였다: 지지기술 (assistive technology) 서비스, 필요한 직무수정과 재구조화 (restructuring)에 따른 직무분석, 노동시장 정보, 구체적 직업에 필요한 신체적 요구조건들, 대안적 고용가능성들, 그리고 지역 사회 자원. 또한 장애인 가족의 태도와 같은 사회적 지지는 재활에 필요한 격려 및 원조의 강한 잠재적 원천으로 간주되었다 (Azrin, Flores, & Kaplan, 1977). 가족, 일상생활, 사회적 환경에 있어서의 사회적 고려는 평가보고서의 필수적 요소들이다.

요인분석 방법들은 연구자들이 많은 수의 변인들을 작은 수의 요인 구조로 축소하여 이들 사이의 복잡한 상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구조를 파악하도록 도운다 (백 영균, 1993; Comrey & Lee, 1992). 요인분석 방법은 크게 탐구적 방법 (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정적 방법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으로 크게 나누며, Kaiser (1970)는 탐구적 요인분석에 있어 성분분석 (component analysis), 일반요인분석 (common factor analysis)과 이미지 분석 (image analysis)의 세가지 수학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Bolton (1972)은 벡터회전 방법 (varimax rotation)이 일반적으로 단순 구조에 적합한 초기 근사치를 제공하는 가장 전전한 과정인 반면, 사선회전 방법 (oblique rotation)은 교차 타당도검사에 적절하지만 표집오차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문헌연구 결과는 재활연구에 있어서 요인 분석 방법이 광범위하게 이용된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요인분석은 알콜중독자들의 예후 측정을 위한 도구개발 (Solomon & Annis, 1989), 약물 남용자들의 중독 정도 평가 및 성격검사 도구의 구인 타당도 (Bischoff & Wilcox, 1990; Rogalski, 1987), 신경행동적 기능 평가도구의 개발 (Fabiano & Goran, 1992),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의 개발 (Gordon, Minnes, & Holden, 1990)을 위해 사용되었다. 요인분석은 또한, 직업 적용 전문가의 직무 및 필수 기능들을 규정하고 검정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Early & Bordieri, 1992), 직업 평가 시스템의 구조 및 본질에 대한 연구를 위해 사용되었다 (Chan, Parker, Dial, Lam, & Carter, 1986).

## 1.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재활을 위한 공공기금의 효율적 사용은 항상 납세자, 입법가 및 행정가들의 주된 관심 영역이지만,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의 부족때문에 재활상담가가 평가사로 부터 제공받는 평가정보의 충분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가 있다. 평가정보를 활용하는 전문가들의 정보욕구를 파악하는 일은 재활정보의 활용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단계일 것이다 (Lee et al., 1994).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재활계획 개발을 위해 재활상담가가 직업평가사로 부터 제공받는 평가정보의 유형을 결정하고 충분성을 조사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연구 문제들이 탐구되었다: (a) 요인분석을 통해 밝혀진 평가정보의 유형은 무엇인가?; (b) 내담자의 재활계획 개발을 위해 평가사로 부터 제공되어진 평가정보 유형에 있어서 지각된 상담가의 중요성에는 유의한 차가 있는가?; (c) 상담가는 이러한 각각의 유형의 평가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는가? 평가사로 부터 제공된 평가정보가 얼마만큼 충분한지에 대한 재활상담가의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는 평가사 교육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훈련교재와 교과과정의 개발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평가보고서에 기재된 정보유형과 관련된 취약한 영역과 강한 영역을 발견하도록 도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평가교육 프로그램, 특히 중핵 교과과정과 관련한 중요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며 재활상담가들이 필요한 보편적인 평가정보의 영역과 범위가 어떤 것인지를 결정하고, 내담자의 어떤 측면들이 평가활동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공할 것이다.

## II. 조사 방법

### 1. 표집, 도구 및 자료 수집

표집된 주정부 기관 명부를 기초로 한 무선 충화비율 방법에 의해 미국 중서부 네개 주 (오하이오, 일리노이, 미네소타, 인디아나)에 고용된 374명의 직업재활상담가에게 질문지가 보내졌다. 이 네개 주의 전체 재활상담가 수는 약 990여 명으로 나타났고 표집테이블 (Krejcie & Morgan, 1970)에 의해 결정된 표본크기의 수는 277명의 재활상담가로 나타났다. 이 표본크기는 35% 초과표집으로 인해 374명으로 증가되었고 개별 주의 표본크기는 재활상담가의 수에 따른 전체 표집 기준비에 의해 결정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각각의 주에서 필요한 상담가의 수는 위의 비율에 의해 오하이오 = 123명, 일리노이 = 105명, 미네소타 = 86명, 그리고 일리노이 = 60명으로 결정되었다. 각각의 표본층에 따른 체계적 무선표집을 통해 선별된 374명의 상담가는 모집단 비율의  $\pm .05$  수준의 오차한계를 가지며, 표집간격 3과 무선타작 (random starting)방법이 적용되었다 (Krejcie & Morgan, 1970). 재활상담가에게 제공된 평가정보의 유형과 충분성을 조사하기 위해 45항목 직업평가 정보 질문지 (Vocational Evaluation Information Questionnaire: VEIQ)가 포괄적 선행연구와 문헌검토에서 선별된 문항들에 대한 2차에 걸친 내용타당도 검

정과정을 통해 구조화되고 개발되었다. 완성된 VEIQ는 5점 Likert 이중 척도 (1 = 전혀, 2 = 약간, 3 = 보통, 4 = 매우, 5 = 극히)를 이용하여 중요성 및 충분성에 대한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최종 제작되었다.

자료의 수집을 위해 각각의 주정부 재활기관 디렉터들로부터 승인을 먼저 얻었으며, 근무지 주소를 이용해서 조사 대상의 개별상담가에게 우표가 부착된 반송용 봉투, VEIQ와 인구학적 질문지, 그리고 안내서신을 포함한 꾸러미가 직접 우송되었다. 안내서신에는 연구의 목적 및 참여에 대한 자발성과 익명성, 그리고 응답에 관한 비밀화 진술을 포함하였다. 각각의 질문지는 우송에 앞서 비밀숫자가 표기되었다. 세차례의 우송이 행해졌고, 질문지의 시의적절한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우편엽서가 최초의 우송이후 칠일에서 11일 사이에 무응답자들에게 보내졌다. 새로운 안내서신, 인구학적 질문지, VEIQ, 그리고 우표가 부착된 반송용 봉투가 포함된 세번째 질문지 꾸러미 우송은 두번째 우편발송 칠일후 보내졌다.

### III. 연구 결과

#### 1. 질문지 회수율 및 응답자 특성

최초 우편이 1994년 6월 3일에서 8일 사이에 발송된 후 6월 21일까지 3차에 걸쳐 질문지들이 발송되었으며, 최종 질문지 반송에 따른 자료의 마감일은 1994년 7월 1일이었다. 374명의 재활상담가들 중, 200명이 연구에 사용가능한 질문지들을 보내왔으며 (약 53.5%의 회수율), 3차에 걸친 우송에 따른 질문지 회수율은 각각 28.3%, 13.4%, 11.8%이다. SAS 컴퓨터 프로그램 (1992)을 이용한 모든 응답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기술을 위한 기술통계 분석결과와 빈도분포는 아래의 <표 1>에 제시되었다. 응답자의 성별에 있어서는 남여 모두 각기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학력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석사학위 혹은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과반수가 도시지역에 근무하였으며 일반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 = 93 (46.4%), 여 = 105 (52.5%), 미분류 = 2 (1%).
교육정도: 고등학교졸업 = 3 (1.5%), 학사학위 = 66 (33%), 재활상담 석사 = 67 (33.5%), 기타 전공의 석사학위 = 61 (30.5%), 박사학위 = 5 (1.5%).
케이스 유형: 일반 케이스 = 117 (59.3%),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22 (11.1%), 정신장애 = 10 (5%), 감각장애 = 23 (11.6%), 기타 = 25 (12.5%), 미분류 = 1 (0.5%)
근무지 유형: 도시지역 = 107 (53.5%), 농어촌 지역 = 84 (42%), 중간형태 = 9 (4.5%)

## 2. 자료 처리

연구문제 #1은 질문지 중요성 척도의 응답에 대한 탐구적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es factor analysis)을 통해 밝혀졌다. 상관행렬 커뮤날리티 산출치로서 제곱중상관을 이용한 축선(principal axes) 방법을 통해 요인을 얻었고, 요인 행렬은 각 요인내의 항목의 균질성과 요인집단의 독립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베리맥스(varimax) 기준에 의해 회전되었다(SAS, 1992). 카이저-구트만(Kaiser-Gutman) 기준과 스크리 검사(scree test)를 통해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다. 요인 채택기준으로는 요인 부하점수 .35 혹은 그 이상이 설정되었다(Rubin et al., 1984). 요인분석 결과, 3요인 해석방법이 가장 개념적으로 명확하며 해석 가능성이 높았다. 이 3요인 해석결과들은 전체변인의 47.7%를 설명하고 있었다. 요인 I(직업인성, 신체 및 인지적 요인)은 전체변인의 41%를 설명하였고 요인 II(구체적 직업선택 요인)은 전체변인의 3.8%를 설명하였으며, 요인 III(공식적 교육 및 훈련 요인)은 전체변인의 2.6%를 설명하였다(요인부하 점수는 본 연구자로 부터 입수가능함). 다음의 표2는 요인에 의해 유목화된 질문지 항목과 각각의 항목에 대한 중요성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표 2> 중요성 척도 항목의 평균 및 표준편차 점수

항 목	평균	표준편차
요인 I: 직업인성, 신체 및 인지적 요인	4.13	.67
39. 내담자의 직업에 대한 동기	4.45	.80
7. 내담자의 직업습관 및 구체적 태도들	4.40	.76
15. 내담자의 능력 및 흥미들과 일치한 직업 목표들	4.35	.76
17. 직업상황에서 지시에 따르는 내담자 능력	4.28	.73
21. 내담자의 실제적 능력들	4.21	.80
42. 직업환경에 대한 내담자의 적응 능력	4.15	.81
36. 내담자의 직업흥미들	4.15	.81
35. 수퍼바이저들(supervisors)로 부터 받는 비판을 감수하는 내담자의 능력	4.14	.74
40. 직무과제들에 따른 내담자의 인내력	4.13	.78
38. 추천된 직업들에 대한 신체적 요구 조건들	4.12	.80
23. 동료근로자들과 지내는 내담자의 능력	4.11	.79
24. 내담자의 직업 기질	4.07	.74
30. 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는 직업활동들과 상황들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	4.06	.85
22. 직장에 출퇴근 하는 내담자의 신체적 능력	4.05	.91
41. 앓기와 서기에 필요한 내담자의 능력	4.04	.78
34. 내담자의 문제해결 및 논리적 기능 수준	4.04	.79
31. 파악된 내담자 고용 가능성의 결합들을 줄이기 위한 추천 서비스들	4.00	.85
43. 내담자의 성격 특성들	3.89	.81
12. 내담자의 운동 기민성	3.80	.79

<b>요인II: 구체적 직업선택 요인</b>	4.09	.56
1. 잠재적 고용과 관련된 내담자의 신체적 능력들	4.36	.86
10. 내담자의 직업목표들의 가능성 여부	4.36	.79
45. 내담자에게 적합한 가능한 직업적 대안들	4.28	.79
9. 직업기술들과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내담자의 잠재력	4.17	.73
20. 적합한 직업적 조정을 위해 필요한 적응기술정보	4.14	.84
26. 내담자 신체능력에 대한 직업적 합의	4.13	.80
13. 경쟁고용을 제한하는 신체상태를 도우기 위한 추천된 서비스들	4.10	.84
6. 내담자의 의사소통기술 수준	4.09	.74
2. 내담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의 직업적 서비스들의 유형	4.08	.94
16. 내담자의 가장 효과적인 학습스타일	4.06	.86
3. 내담자의 잠재적 직업대안들과 관련된 지역사회노동시장 조건들에 관한 정보	4.04	.95
25. 지방노동시장의 직업전망	4.03	.91
18. 내담자가 피해야할 직업적 스트레스의 유형들	4.00	.81
4. 내담자의 자아존중감 수준	3.97	.88
8. 경쟁고용을 제한하는 인지적 상태를 도우기 위한 추천된 서비스들	3.95	.91
19. 직업적 정보에 대한 내담자의 욕구	3.71	.96
<b>요인III: 공식적 교육 및 훈련 요인</b>	3.88	.99
14. 내담자 적성들	4.09	.78
27. 대학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 성공할 수 있는 내담자의 잠재력	4.06	.93
29. 내담자의 직업기술들의 전이 가능성	4.05	.84
37. 내담자의 인지적능력들의 직업적 합의들	4.04	.78
28. 내담자에게 필요한 구직 기술 훈련	3.98	.87
33. 지역사회에 유용한 훈련 프로그램들	3.82	.97
11. 내담자의 잠재적 직업대안들에 대한 교육적 요구조건들	3.78	.90
44. 내담자의 훈련 및 직업경력	3.75	.97
5. 내담자의 학업성취 수준	3.75	1.01
32. 작업표본에 있어서 내담자의 성취수준	3.46	.99

연구문제 # 2를 밝히기 위해 중요성 척도의 반응들을 이용하여 각 요인의 평균 점수들이 계산되고 이들의 유의차 검정을 위해 비독립 t검정 (SPSS, 1988)이 사용되었다. 이 결과 요인 I과 III 사이와 ( $t = 8.38$ ,  $df = 199$ ,  $p < .0001$ ), 요인 II와 요인 III 사이에는 통계적 유의차 ( $t = 7.75$ ,  $df = 199$ ,  $p < .001$ )가 나타났으나, 요인 I과 II 사이에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 $t = 1.44$ ,  $df = 199$ ,  $p < .153$ ).

연구문제 #3을 밝히기 위해 각각의 유목화된 질문항목에 대한 충분성 척도의 빈도분포가 별첨의 <표 3>에 제시되었다. 표3에서처럼 “매우”와 “극히” 충분하다는 응답자의 반응에 대한 백분율을 합하여 각각의 요인내에서 질문 항목들을 서열화 하였다. 요인 I에서는 과반수의 항목들에 대해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평가정보가 “매우” 혹은 “극히” 충분하다고 지각하였다. 요인 II의 16 항목 전부가 재활계획개발 목적을 위해 평가사로 부터 “매우” 혹은 “극히” 충분한 평가정보를 받았다고

응답한 재활상담가의 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요인 III의 10 항목중 단지 세 항목만이 과반수의 응답자들에 의해 “매우” 혹은 “극히” 충분하다는 반응을 얻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재활상담가가 평가사로 부터 제공받은 평가정보는 직업 인성, 신체 및 인지적 요인, 구체적 직업선택 요인, 그리고 공식적 교육 및 훈련 요인의 세 유형으로 나타났다. 직업인성, 신체 및 인지적 요인은 구체적 직업선택 요인과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지만, 이 두요인은 공식적 교육 및 훈련 요인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었다. 따라서 직업인성, 신체 및 인지적 요인과 구체적 직업선택 요인에 속한 직업평가 정보들은 공식적 교육 및 훈련 평가정보 유형에 속한 평가정보 보다 훨씬 중요하게 지각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실제적 평균 점수차에서 보여주는 작은 차이는 위의 요인들 사이의 차가 실제적으로는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VEIQ에 있는 거의 모든 평가정보 항목들이 주정부 직업재활상담가에 의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Peters와 그의 동료들 (1993)이 주장하였듯이, 직업평가는 내담자의 직업적 적합성과 선택,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의 선택, 그리고 개인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지기술 (assistive technology)을 위한 권고 등의 결정을 위해 사용되어왔다.

본 연구에서 과반수의 응답자 (56%)들이 1993년 20%에서 80% 사이의 그들 내담자들을 직업평가 의뢰하였고, 이것은 이전의 연구들 (Lee et al., 1994)에서의 발견들과 같이 직업평가는 주정부 재활기관에 근무하는 많은 재활상담가들에 의해 빈번히 구입되는 재활서비스라는 것이 드러났다.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유형별 평가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비교를 위해 비독립 t검정을 행한 결과, 재활상담가들이 내담자들을 위해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결정하도록 돋기위한 것보다는, 내담자를 위해 최적의 직업선택을 도우고 내담자의 고용가능성에 있어서의 결함을 사정하기 위해 평가보고서를 이용한다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Wesolek과 McFarlane의 1991년 연구결과들과 일관되게, 상담가들은 그들 내담자들의 즉각적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정보를 보다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담자의 직업 인성, 신체 및 인지적 요인 (요인 I)과 구체적 직업선택 요인 (요인 II) 내의 평가 정보는 단기 재활준비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의 결정요인들과 관련된 정보는 장기 재활준비와 관련되어 있다. 이 현상은 주정부 재활서비스를 요청한 내담자들을 위해 직접적인 직업배치에 따른 권고들을 제공하기 위한 압박을 재활상담가가 받고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재활상담가들은 적은 기금으로 보다 많은 내담자들을 위해 일하도록 요구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아래 표 4 참고). 그러나 세 직업평가 정보유형에 포함된 모든 평가정보들이 응답자

들에 의해 아주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예를 들어, 평균 요인점수들은 이들 재활상담가들이 내담자의 공식적 교육 및 훈련정보들을 평가사로 부터 제공받으려는 주요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충분성 척도에 대한 반응의 분석결과, 재활계획 개발을 위해 재활상담가에 의해 명확히 매우 중요하게 간주된 직업평가 정보영역인 직업선택 요인에 있어서 중요한 결합들이 나타났다. 이 유형 내의 항목들은 내담자의 성공적인 재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내담자의 직업배치와 관련된 문제들에 특히 관련되어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재활상담가들은 그들이 제공받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평가사로 부터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각한 정보 결핍의 항목들은 다음과 관련되어 있다: “파악된 내담자 고용가능성의 결합들을 줄이기 위한 추천 서비스들” (요인 I), “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는 직업활동과 상황들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 (요인 I), “지방 노동시장의 직업전망” (요인 II), “내담자의 잠재적 직업대안들과 관련한 지역사회 노동시장 조건들에 대한 정보” (요인 II), “지역사회의 유용한 훈련프로그램들” (요인 III), 그리고 “내담자 직업기술들의 전이가능성” (요인 III). 재활상담가들은 내담자의 직업인성의 많은 국면들과 관련하여 충분한 평가정보를 받아왔다는 것이 나타났지만, 공식적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권고들 특히 구체적 직업선택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는 충분히 받아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4> 평가정보영역의 충분성 요인 점수들의 비교를 위한  
양표본 t검정 요약표

요인	df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I	193	3.49	.62	14.53	<.0001
II		3.06	.65		
I	193	3.49	.62	5.43	<.0001
III		3.33	.65		
II	194	3.06	.65	-8.20	<.0001
II		3.33	.65		

\* 평균치 비교 = 요인 I > 요인 II > 요인 III

본 연구의 제한점들 중의 하나는 연구결과가 특정 지리학적 지역 내의 재활상

답가들로 부터 얻어진 응답을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른 지역의 재활상담가들에게 일반화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약 50%에 가까운 질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표집성원들이 인식한 직업평가 정보의 중요성 및 충분성 정도가 응답자의 것과 같으리라는 확신을 할 수 없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은 본 연구자가 주정부 재활상담가들에게 평가정보를 제공한 직업평가사들의 교육훈련 배경을 조사하지 않은 점이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기초로한 대표성있는 표본을 이용한 추수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추수연구는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내용타당도를 거친 측정도구의 사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추수연구의 질문지 구성과정은 질문지 항목의 내용을 발전시키기 위한 Delphi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표 3> 질문지 각 항목별 충분성에 대한 백분율

항 목	비 율 (단위:%)					
	N	전혀	약간	보통	매우	극히
<b>요인I: 직업인성, 신체및 인지적 요인</b>						
39. 내담자의 직업에 대한 동기	188	1.1	13.3	34	30.9	20.7
7. 내담자의 직업습관 및 구체적 태도들	192	1.6	5.7	28.1	39.1	25.5
15. 내담자의 능력 및 흥미들과 일치한 직업목표들	190	2.6	9.5	40	34.2	13.7
17. 직업상황에서 지시에 따르는 내담자의 적응능력	192	0.5	6.3	25	47.4	20.8
21. 내담자의 신체적 능력들	192	2.1	8.9	36.5	38	14.6
42. 직업환경에 대한 내담자의 적응 능력	190	1.6	12.6	37.9	35.3	12.6
36. 내담자의 직업흥미들	192	1	7.3	26.6	44.3	20.8
35. 수퍼바이저들로부터 받는 비판을 감수하는 내담자의 능력	193	2.6	7.3	31.6	39.4	19.2
40. 직무과제들에 따른 내담자의 인내력	193	2.1	7.3	30.1	40.4	20.2
38. 추천된 직업들에 대한 신체적 요구조건들	191	2.6	17.3	31.9	35.6	12.6
23. 동료근로자들과 지내는 내담자 능력	192	1	11.5	29.7	46.4	11.5
24. 내담자의 직업기질	192	2.6	7.8	33.3	48.4	7.8
30. 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는 직업활동과 상황들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	192	10.4	20.8	41.7	20.3	6.8
22. 직장에 출퇴근하는 내담자의 신체적 능력	192	5.2	13.5	42.7	30.2	8.3
41. 앓기와 서기에 필요한 내담자의 능력	191	1.6	7.3	31.4	46.6	13.1
34. 내담자의 문제해결 및 논리적 기능수준	190	2.6	11.6	38.9	36.3	10.5
31. 파악된 내담자의 고용가능성의 결합들을 줄이기 위한 추천된 서비스들	191	6.3	19.8	44	23.6	6.3
43. 내담자의 성격특성들	191	2.1	13.1	47.1	31.4	6.3
12. 내담자의 운동기민성	193	0.0	8.3	32.1	42	17.6
<b>요인II: 구체적 직업선택 요인</b>						
1. 잠재적 고용과 관련된 내담자의 신체적 능력들	192	2.1	14.1	39.6	32.8	11.5
10. 내담자의 직업목표들의 가능성 여부	189	3.2	14.8	38.6	34.9	8.5
45. 내담자에게 적합한 가능한 직업적 대안들	189	4.2	19.6	37.6	28.6	10.1

9. 직업기술들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담자의 잠재력	192	5.2	16.1	39.6	<b>32.8</b>	<b>6.3</b>
20. 적합한 직업적 조정을 위해 필요한 적응기술정보	191	12.6	26.2	32.5	<b>22</b>	<b>6.8</b>
26. 내담자 신체능력에 대한 직업적 합의	192	3.1	16.1	39.6	<b>31.8</b>	<b>9.4</b>
13. 경쟁고용을 제한하는 신체상태를 도우기 위한 추천된 서비스들	193	4.7	25.4	37.3	<b>23.8</b>	<b>8.8</b>
6. 내담자의 의사소통기술 수준	189	0.5	11.6	39.7	<b>34.9</b>	<b>13.2</b>
2. 내담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적 직업적 서비스들의 유형	190	3.2	13.7	42.6	<b>33.2</b>	<b>7.4</b>
16. 내담자의 가장 효과적인 학습스타일	192	5.2	32.3	33.9	<b>22.9</b>	<b>5.7</b>
3. 내담자의 잠재적 직업대안들과 관련된 지역사회 노동시장 조건들에 관한 정보	193	17.6	36.3	28.5	<b>13</b>	<b>4.7</b>
25. 지방노동시장의 직업전망	192	14.6	35.9	31.2	<b>15.6</b>	<b>2.6</b>
18. 내담자가 피해야 할 직업적 스트레스의 유형들	190	6.3	22.6	46.8	<b>17.9</b>	<b>6.3</b>
4. 내담자의 자아존중감 수준	190	3.7	13.7	45.3	<b>30</b>	<b>7.4</b>
8. 경쟁고용을 제한하는 인지적 상태를 도우기 위한 추천된 서비스들	190	9.5	25.3	40.5	<b>20</b>	<b>4.7</b>
19. 직업적 정보에 대한 내담자 욕구	194	8.2	25.3	41.8	<b>18.6</b>	<b>6.2</b>

### 요인III: 공식적 교육 및 훈련 요인

14. 내담자의 적성들	191	2.1	5.8	26.7	<b>49.7</b>	<b>15.7</b>
27. 대학이나 직업훈련프로그램에서 성공할수 있는 내담자의 잠재력	193	6.7	15	36.8	<b>32.1</b>	<b>9.3</b>
29. 내담자의 직업기술들의 전이 가능성	189	8.5	22.8	41.3	<b>19.6</b>	<b>7.9</b>
37. 내담자의 인지적 능력들의 직업적 합의들	191	4.2	16.8	36.1	<b>35.6</b>	<b>7.3</b>
28. 내담자에게 필요한 구직 기술 훈련	190	6.8	18.4	33.7	<b>30</b>	<b>11.1</b>
33. 지역사회에 유용한 훈련프로그램들	191	9.4	21.5	42.9	<b>17.3</b>	<b>8.9</b>
11. 내담자의 잠재적 직업 대안들에 대한 교육적 요구 조건들	192	5.2	15.1	37	<b>35.4</b>	<b>7.35</b>
44. 내담자의 훈련 및 직업경력	190	4.7	8.9	38.9	<b>35.3</b>	<b>12.1</b>
5. 내담자의 학업성취 수준	191	3.1	7.3	33.5	<b>35.1</b>	<b>20.9</b>
32. 내담자의 성취수준	189	3.7	7.4	25.9	<b>38.6</b>	<b>24.3</b>

## 참고문헌

- 백영균(1993). 통계분석을 위한 SPSSpc+ 활용. 서울: 학지사.
- Adami, H., & Neubert, D. (1991). A follow-up vocational assessment recommendations and placement in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program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Vocational Evaluation and Work Adjustment Bulletin*, 24(3), 101-107.
- Azrin, N.H., Flores, J., & Kaplan, S.J. (1977). Job-finding club: A Group-assisted program for obtaining employment.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21(2), 130-140.
- Bischoff, H., & Wilcox, D. (1990). Prevention of drug and alcohol abuse.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1, 221-226.
- Bolton, B. (1972). Factor analysis in rehabilitation research.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16(2), 94-103.
- Brown, C.D., & Sink, J.M. (1986). Congruence of expectations between referral source and vocational evaluator on selected vocational factors. *Vocational Evaluation and Work Adjustment Bulletin*, 19, 129-133.
- Chan, F., Parker, H. J., Dial, J. G., Lam, C. S., Carter, H. S. (1986). Factorial validity of the McCarron-Dial Work evaluation system. *Vocational Evaluation and Work Adjustment Bulletin*, 19(3), 91-99.
- Comrey, A. L., & Lee, H. B. (1992). A first course in factor analysis (2nd ed.).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Dowd, E.T., & Wallbrown, F. (1993). Motivational components of client reactan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1(5), 533-538.
- Early, J.K., & Bordieri, J.E. (1992). A comparison of the job tasks and functions of work adjustment specialists with other selected occupations. *Vocational Evaluation and Work Adjustment Bulletin*, 25(1), 7-14.
- Fabiano, R.J., & Goran, D.A. (1992). 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the Katz Adjustment Scale in a traumatic brain injury rehabilitation sample. *Rehabilitation Psychology*, 37(2), 75-85.
- Krejcie, R.V., & Morgan, D.W. (1970). Determining sample size for research activit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0, 607-610.
- Lee, D.Y., Taylor, D.W., & Rubin, S.E. (1994). Rehabilitation Counselors' perceived value of vocational evaluation information. *Vocational Evaluation and Work Adjustment Bulletin*, 27(2), 33-37.
- Poor, C.R. (1975).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ies.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18(4), 264-271.
- Power, P.W. (1991). A guide to vocational assessment (2nd ed.). Austin, Texas: Pro-ed.

- Renwick, R.M., & Krywonis, M. (1992).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related to employment: Implications for substance abuse intervent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58(1), 23-28.
- Roessler, R.T., & Bolton, B. (1985b). The Work Personality Profile: An experimental rating instrument for assessing job maintenance. *Vocational Evaluation and Work Adjustment Bulletin*, 18(1), 8-11.
- Roessler, R.T., & Rubin, S.E. (1982). Case management and rehabilitation counseling: Procedures and techniques. Austin-Texas: Pro-ed.
- Rogalski, C.J. (1987). Factor structure of the addiction severity index in an inpatient detoxification sampl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 22(10), 981-992.
- Rogers, E.S., Sciarappa, k., & Anthony, W.A. (1991).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situational assessment instruments and procedures for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y. *Vocational Evaluation and Work Adjustment Bulletin*, 24(2), 61-67.
- Sabin, M.C., Cuvo, A.J., & Musgrave, J.R. (1987). Developing a client satisfaction scale in a vocational evaluation setting. *Vocational Evaluation and Work Adjustment Bulletin*, 20(3), 107-113.
- SAS Institute Inc. (1992). SAS/STAT user's guide: Releases 6.03 Edition. Cary, North Carolina.
- Singelman, C.K., Vengroff, L.P., & Spanhel, C.L. (1979). Disability and the concept of life functions.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23(2), 103-113.
- Singleton, W.T. (1989). The mind of work: Psychological ergonomics. Cambridge: Great Britain at the University Press.
- Solomon, K.E., & Annis, H.M. (1989).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outcome expectancy in alcoholic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3(5), 409-421.
- SPSS Inc. (1988). SPSS-X user's guide (3rd ed.). Chicago, Illinois.
- Taylor, D.W., Bordieri, J.E., Crimando, W., & Janikowski, T.P. (1993). Job tasks and functions of vocational evaluators in three sectors of practice. *Vocational Evaluation and Work Adjustment Bulletin*, 26(2), 39-46.
- Thoman, D.L. (1989). Vocational rehabilitation counselor's understanding, utilization, and perceived value of vocational evaluation services. Unpublished master's manuscript.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Columbia, MO.
- Thomas, S.W. (1991). Vocational evaluation and traumatic brain injury: A procedural manual. Menomonie-Wisconsin: Materials Development Center.
- Weinsten, H.P. (1978). The impact of facility-based vocational evaluation services on referring Michigan Bureau of Rehabilitation counselor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9, 6554A. (University Microfilm No, 79-07425).

Wesolek, J.S., & McFarlane, F.R. (1991). Perceived needs for vocational assessment information as determined by those who utilize assessment information as determined by those who utilize assessment results. *Vocational Evaluation and Work Adjustment Bulletin*, 24(2), 55-60.